



[코로나19] 개학 연기 현실로 "최소 2~3주 더 필요" 04



Economy

코스피	1672.44 (-42.42)	코스닥	514.73 (+10.22)
금리 (미국 3년)	1.04 (-0.06)	환율 (원/달러)	1243.50 (+17.50) (17일)



코로나19 여파 한산한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 뉴욕

·뉴저지·코네티컷 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술집, 체육관, 영화관, 카지노 등의 영업을 중단하고 식당은 포장주문만 허용키로 했다. /AP=연합뉴스

## 원화값·주가 10년 전 수준 대폭락

美 증시 급락에 코스피도 뚝 시총 상위 10곳 중 8곳 하락장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가 13%에 육박하는 대폭락장을 연출하자 코스피도 이에 반응했다. 원화값도 폭락했다. 달러 선호심리가 계속되며 10여년 만에 1240원대를 나타냈다.

17일 코스피지수는 외국인 매도 우위 속에 전 거래일보다 42.42포인트(2.47%) 추락한 1672.44에 장을 마감했다.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였다. 장중 1722.97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고꾸라져 1637.88까지 하락했다가 하락폭을 줄이며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시가 기준으로 2010년 6월 8일(1635.01)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의 '코리아 포비아'는 여전했다. 1조원 이상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5990억원과 3586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은 1조93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장을 이끌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 셀트리온(1.51%)과 LG생활건강



(0.09%)를 제외한 8종목이 하락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600원(3.27%) 떨어진 4만7300원에 거래를 끝내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린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 반대 움직임을 가져갔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0.22포인트(2.03%) 오른 514.73에 거래를 마치고 전날의 낙폭을 일정부만 완화했다. 개인은 3334억원을 순매도했으나 외국인이 각각 2495억원, 840억원을 사들였다.

간판 폭락한 미국 뉴욕증시가 코스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공포에 장악된 심리적인 투매는 시장 안정을 찾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뉴욕증시가 폭락하며 국내증시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16일(현지 시간) 미국 주요 지수는 모두 폭락했다.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97.10포인트(12.93%) 주저앉은 2만188.5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1.98%(324.89포인트)와 12.32%(970.28포인트) 내린 2386.13과 6904.59에 장을 마감했다. 1987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22.6% 폭락한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며 금융시장 요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값의 추락도 계속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7.5원 오른 달러당 124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송태화 기자 atin@

## 메르스 겪고도 가이드라인 미비로 치료 난항

# 음압병실 장비 태부족 상급병원도 구색 갖추기

코로나19 대응 빅5 병원들 병상 갖추고도 장비는 미흡 음압병동 운영세부기준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내 의료기관들이 음압격리병실을 갖췄지만 내부 진단 장비가 부족해 환자 치료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감염병전담병원이나 빅5 병원들은 부랴부랴 장비 확충에 나섰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적이 나온다.

### ◆병실은 있는데 장비가 없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과 음압병실을 갖춘 상급종합병원들은 부랴부랴 진단장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들이 음압병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하면서

병상의 구색은 갖췄지만 내부 진단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음압격리병실 설치 운영 세부기준'에 따르면 음압병실은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전실과 필터를 갖춘 급기시설·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제시했지만, 장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음압병상도 중요하지만 감염병 치료에 맞는 진단 장비들을 갖추는게 더 시급한 문제"라며 "지금은 장비없이 시설 구색만 갖춘 병원이 많아 실제 환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의 가장 큰 문제는 감염된 검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확진자 체내에서 뽑아낸 혈액 등을 진단검사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생존에 중요한 바이탈 사인을 조절하는 장비들도 이리저리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 관리가 가장 큰 문제다.

한 다국적제약사한 관계자는 "이달 초,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의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등에서는 장비를 급하게 요구하는 전화가 폭주했다"며 "상황이 워낙 다급하니 제대로 검증이 안된 영세업체 장비들이 되는대로 일단 가져다가 쓰는 곳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료장비를 설치 시기가 이미 너무 늦었다는 데 있다. 장비를 병원 전산망에 연결하기 까지 하루 이상이 걸리고, 설치 이후에는 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의료진들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10조 채권안정펀드·P-CBO발행 등 검토

### 금융위, 시장안정방안 점검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이나 주식시장 거래 시간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긴급 금융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즉시 시행 가능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조치와 증시수급 안

정화 방안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장안정 조치는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금융안정기금 등이다.

금융위는 우선 제로금리 여파에 따라 시장에 수급불안이 생기면 외환위기때처럼 10조원 이상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채권시장의 신용경색과 수요기반 확충을 위

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으로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주에는 일시적으로 호재로 작용했다.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P-CBO를 발행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해 신용등급을 높여 회사채를 발행·자금조달을 돕겠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5@

KOLON LifeStyle Innovator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대한민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건강해질 대한민국을 코오롱도 응원합니다